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9년 2월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지금은 본원에서 안내실 사도직을 하고 있는 한미경수녀입니다.

첫파견을 1992년 2월 서울 성북동에 있는 씨튼피정의집으로 시작하여 피정사도직 2곳, 본당사도직 6곳, 공부, 내부사도직 5곳, 사회복지 2곳을 거쳐 지금은 본원 안내실에서 수녀님들의 출입과 내,외부 동향, 전화받기 등의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서 이웃을 위

해 봉사하거나 혹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사도직 안에서 만난 모든 분들과 상황, 사건들이 저를 위한 시간들, 즉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마련된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좋은면을 통해서 혹은 부족이나 모난면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신 역사의 시간들이었기에 그저 고맙고 감사한일 외에 무엇이 더 있을까요~~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하느님을 체험하고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상처였다고... 아



픔이었다고... 고개숙이고 움츠러들었던 시간들도 나 자신을 알게 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등공신이었음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양성기를 거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식하게 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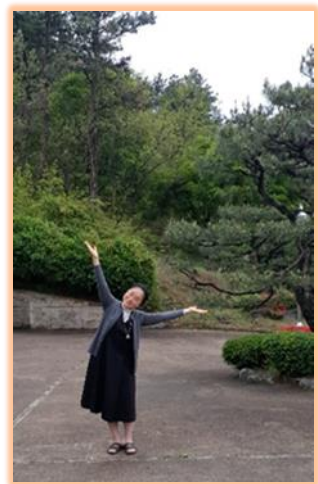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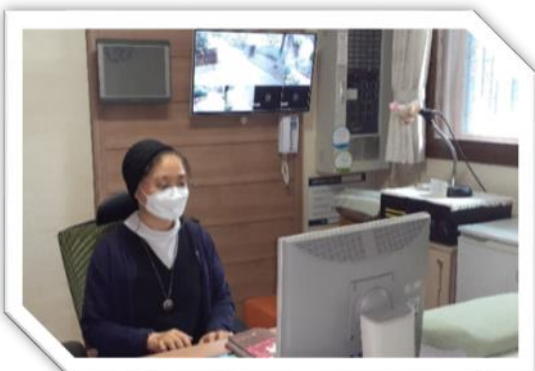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 미사를 통해 주님을 모시고, 공동체수녀님들과 맛있는 식사시



간을 갖고 로비방과 화장실, 현관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일상이 참으로 소중함을 느낍니다. 공동체 수녀님들이 각자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보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청하게 되고 몇칠 자리 비우고 돌아오시는 수녀님의 실내화를 꺼내놓으면서 환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안 곳곳의 동향을 살피고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일에 긴장감도 있지만 한편

으로 집안을 지키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고요한 미풍 속에 계신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듯이 드러나지 않는 작은 몸짓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다시 오늘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Sr. Han, Mi Kyeong. I entered our community in February 1989. This year I ministered at the information desk at the Provincial House. Starting my first apostolate at Seoul Seton Retreat House in February 1992, I worked at two Retreat Centers, six Catholic ministries. I worked for five interior ministries and two social welfare apostolates. As a receptionist at the Provincial House, I receive the calls and take notes of sisters' and the guests' going and coming.



Recalling the past years, I used to think I served or sacrificed myself for neighbors through diverse ministries. However, all the situations and people that I encountered were not accidental. Instead, I realized, God prepared everything for me. I just have to say thank you to God because He let me know how good He is through my weakness or goodness or shortness in my life. Through various ministries and encounter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 could experience God. I also admit

that I was hurt and have felt pain through community life. However, I cannot help confessing all of these time that made drop my head and shrink back eventually contributed for my growth as a person of God. That's why I am grateful to God now because I realized that the things we cannot see with ey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things that can be seen. When I was in the formation period, I thought the things that I saw with my eyes were everything.



These days I realize that preparing for daily life activity such as rising up in the morning, receiving God in the Eucharist, having delicious meals with sisters, cleaning the lobby and bathrooms, and cleaning the front door is precious. Listening to sisters' footsteps going toward the workplace every morning, I pray to God for their safety. As a receptionist, whenever I welcome the sisters who return from going out or for visits, I nurture a heart of welcoming strangers. Sometimes, some issues make me nervous to look around with sensitivity or alertness; I am proud of myself as a keeper of the house. Like feeling the breath of God who dwells in a gentle breeze, I begin today to become a person of God with a tiny gesture - without showing any significant motion. Thank you!

